



실비아 패튼(48·위싱턴 거주) 한미여성회 총연합회장은 9일 방한, "이 대회가 한국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혼혈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여성회 총연합회 회장 실비아 패튼씨 방한

“국제결혼 여성·혼혈인 차별 사라져야죠”

패튼 회장은 오는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바비엔 스위트 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 대회장을 맡았다. 한미여성회 총연합회는 미국 내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으로, 13개 주에 지부를 두고 있고 1천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은 미국에 20만 명, 세계에 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패튼은 또 "1회 대회와 달리 2회 대회는 국제

결혼 여성들의 자산 가치를 알리고 21세기 한민족 시대의 당당한 주역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인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면서 "혼혈인 아동의 집 방문과 국제결혼 여성 및 혼혈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양구 출생인 그는 1990년 미군 장교를 만나 버지니아주로 갔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

지 워싱턴에서 '페어 뷰 파크 꽃집'(아름다운 꽃집)을 운영하면서 노숙자 급식, 양로원 방문, 불우여성돕기,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반안 통과 캠페인, 주방 위기에 처한 한인 여성 구명운동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아시아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패튼 회장은 이란 공로로 미국 정부 기관과 각종 단체로부터 사회봉사상과 자원봉사상, 감사패와 공로패를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加 동포 여대생 정소영양 '총독상'

고교 졸업생중 성적 우수학생 뽑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립대(UBC)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소영(19·리사 정·사진 가운데) 양이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는 총독상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 양의 아버지 정하성씨는 9일 "지난 6월5일 벨센터에서 상을 받았다"며 "장학금과 메달, 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가운데 각 학교에서 1명에게만 주어지는 상으로, 정 양은 서베이 소재 플리트우드 세컨드리 하이스쿨에서 11-12학년의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1등을 했다.

신화, 중서도 신화 창조... 팬 1만여명 열광



그들 신화가 팬들의 환호 속에 첫 단독 공연을 마무리했다. 8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상하이 대무대에서 열린 'STATE OF THE ART' 공연에서 신화는 1만여 명의 현지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히트곡 중심으로 짜여진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공연에 앞서 "중국에서의 첫 단독 공연이니만큼 멤버 전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많이 보여주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신화는 중간중간의 영상이나 코멘트를 제외하고는 1시간40분에 이르는 공연 시간을 노래와 춤으로 백백히 채워 직접 노래를 듣고 싶었던 중국 팬들의 기대와 갈증을 풀었다. 1만석이 조금 넘는 좌석은 중국의 10대 팬들에게는 비싼 액수였으나 좌석이 매진된 공연장에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성우 송도순씨 장남 탤런트 박형재 결혼

탤런트 박형재(31)가 8일 5년간 교제해 온 체자연(28)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웨딩의 전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탤런트 김성민이 사회로 진행됐으며 가수 윤종신이 축가를 불렀다. 주례는 박형재의 은사인 최상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이 맡았다. 성우 송도순의 아들인 박형재는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체씨와 5년 전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파바로티, 췌장암 수술로 공연 일정 취소

현재 활동중인 가장 뛰어난 테너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미국의 한 병원에서 긴급 췌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라고 그의 매니저가 7일 밝혔다. 올해 70세인 파바로티는 당초 일련의 고별 공연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수술로 인해 공연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내년초에나 공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매니저인 테리 톨슨은 밝혔다. 파바로티는 지난주 영국 공연을 위해 뉴욕을 출발하려다 일삼 검진 끝에 췌장 종양이 발견됐으며 "다행스럽게" 종양을 모두 절제해 냈다고 톨슨은 전했다.



최형식 前담양군수 '장한 한국인 상'

최형식 前담양군수(사진 왼쪽)가 한국 최고 엘리트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장한 한국인 상'을 수상했다. 최 前군수는 한국경제리서치·코리아통계자료실·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을 비롯 경향신문·스포츠칸 등 중앙의 10여개 기관시민단체, 언론사가 후원하는 제2회 장한 한국인상 시상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갈 지방자치 주역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장한 한국인 상'은 해당 산업분야 지식재산을 겸비한 엘리트 경영인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복지수준향상 등에 공헌한 한국의 표상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 前군수는 지역 특산물인 대나무 신산업과 생태도시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생태환경도시를 이뤄냄으로서 지방자치를 특성화 한 정책마인드와 자치행정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제·사회·의료·행정·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전국을 통틀어 총25명을 선정 한 올해 '장한 한국인 상' 대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담양=차재희기자 jhw@

호킹박사, 인류의 운명 네티즌에 질문



"인류가 다음 10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혼돈 상태인 이 세상에서 인류가 앞으로 100년 간 지속할 수 있을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이자 이론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64) 박사가 포털사이트 야후의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요즘 인류의 운명에 대해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호킹 박사는 5일 '야후 앤서즈(Yahoo Answers)'에 이같은 질문을 올렸고, 이를 만여 명이 가까운 네티즌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어쨌든 인류는 생존할 것", "기술이 인류에게 다음 세기를 보장할 것", "싸움을 끝내고 협력한다면", "신과 사랑과 평화의 결합된 힘으로" 호킹 박사는 지난달 홍콩에서 한 연설에서 인류의 생존은 외계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을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가 재난으로 멸망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만일 인류가 앞으로 100년 동안 자멸을 피할 수 없다면 지구의 지원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우주 정착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는 호킹 박사와 협의해서 가장 현명한 대답 6~10개를 골라 게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 ◆목포대 ▲교육연구과장 전재선 ▲학생지원과장 안한권 ▲총무과장 이철승 ▲경리과장 조정강

작두 타는 국립민속박물관 양종승 연구관

'반무당·반학자'...무속연구 한평생

한국 무속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국립민속박물관 양종승(54) 학예연구관은 '무당'이다.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적은 없지만, 무당만이 할 수 있다는 작두를 탄 경험도 있다. 승무와 판소리에 능하며, 무형문화재 강령탈춤은 정식으로 이수했다. 더구나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양 연구관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존경하는 '후원자'로 통한다. 무속 신앙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학자로서 반 무속인으로 살았던 그가 무속인의 애환을 잘 공감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그가 평생을 모아온 무속 수집품을 정리해 사머니즘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다. 본업인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국제교류 담당) 일 외에도 대학에서 무속 이론·춤·승무 등을 가르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도 주말 이틀은 고박 수집품 정리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는 "개인 사립박물관은 문을 열면 곧 적자라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 "수년 내 문을 열 것"이라고만 했다. 그의 서재는 전통연희와 사머니즘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무당들을 직접 인터뷰한 테이프로 가득했고, 침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방울, 산신도, 의복, 약기류, 부채 등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여수에서 무속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엄한 부모 밑을 벗어나 서울로 대학에 진학한 뒤 본격적으로 판소리, 승무, 강령탈춤 등을 배우며 무속인의 꿈을 키웠다. 실제로 대학 때는 70년대 '큰 무당' 우옥주 선생과 박동신 선생의 집에 기거하며 무속을 배우기도 했다. 이후 직접 무당이 되기보다 무속을 이론적으



로 연구해 양지로 끌어내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한국인은 '영적인(spiritual)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무당이 괜히 작두를 타는 게 아니에요. 신바람으로 작두 위에 오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그 앞에 절 한번 하고 집과 일터로 돌아가 다시 힘을 내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신바람'의 원천인 무속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호주 명문대 재원 미스 오세아니아 眞 정효정씨

"지성·인성 갖춘 CEO가 꿈"

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호주 HSC 점수 99.2점을 받고 호주 UTS 법대에 들어갔다 적성이 맞지 않아 올해 NSW대에 편입학했다. 이 대학은 HSC 점수 95점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9일 "자신감을 살리기 위해 재미삼아 도전했는데 대양주 최고 미인 대회에 뽑히고, 다시 본선대회를 준비하려 하니 열렬했다"며 "진짜 미인은 '조각 같은 얼굴과 늘씬한 몸매'보다는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만일 본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호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할 것"이라며 "유명세를 발판으로 연예계나 방송계 쪽으로 눈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씨가 국제번호사에서 CEO로 목표를 바꾼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다. 그의 부친은 제주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하버드대 대학원에 들어가 MBA 과정을 밟고 월가 등에서 일한 뒤 미국 또는 한국에서 '퐁크 경영'을 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세계적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될 겁니다" 내달 열리는 미스코리아 본선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오세아니아 진(眞) 정효정(19)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학 커머스(경제·경영·무역·금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재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임한규씨 장남 종찬(나주보건소 공중보건)군 김기원(전 남광건설 전무)씨 장녀 주미양=15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일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강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송원고 총동창회 기별회장단 월례회=10일(월) 오후 7시 중앙동 녹차 먹인 오리.010-7212-0085 ▲재광 전주 영성고 총동문회(회장 배기영) 모임=11일(화) 오후 7시 장어한마리.371-9230 ▲북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

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7시 나주공탕. 652-7788 ▲재광 무안북중 19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4일(금) 오후 7시30분 살맛나는 세상. 682-8592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14일(금) 오후 8시 아마기 잠자회집. 011-9609-0055

모집

▲화회장식국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시험감독관 모집=교직·공무원으로 퇴직한 60세 이상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062-351-5070, 654-6080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자 수 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

=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남구시니어클럽 식음전처리사업단 참여자 모집=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녀 654-60680 ▲대불대 보건복지 서비스센터 가족복지상담실 봉사자 모집=목욕차 운전, 목욕 도우미, 차량 지원 봉사 061-469-1565, 010-4607-0813 ▲함울복지재단·광주북구시니어클럽 함창단 사물놀이 회원모집=50세이상 매주 화요일 오전10~12시 512-3521, 010-9944-1725 ▲죽산 복지원 봉사자 모집=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거할머니 할아버지 택 방문 등 각종 봉사활동 653-7159, 652-7544 ▲광주시 남구 방림동 자율방범대원 모집=방림동 거주자(25~55세)로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활동 할 사람. 016-362-2180, 652-8389 ▲광주아버지합창단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223-0808, 016-601-3190 ▲전남장애인재활협회 자원봉사자 모집=장애인 가정 방문 컴퓨터 AS, 교통비 지급 524-186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담양장애인사랑봉사회(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중증장애자에게 인계 봉사할 차량·후원·말벗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

8102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 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 가능. 0505-206-0106 ▲푸른학당=오전반(경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부음

▲최순임씨 별세 김경섭·건숙·미애·정숙·은지·은례씨 모친상 박수남·정영문·손상배씨 모친상=발인 11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경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길모듬별반양 (062)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062)515-4488